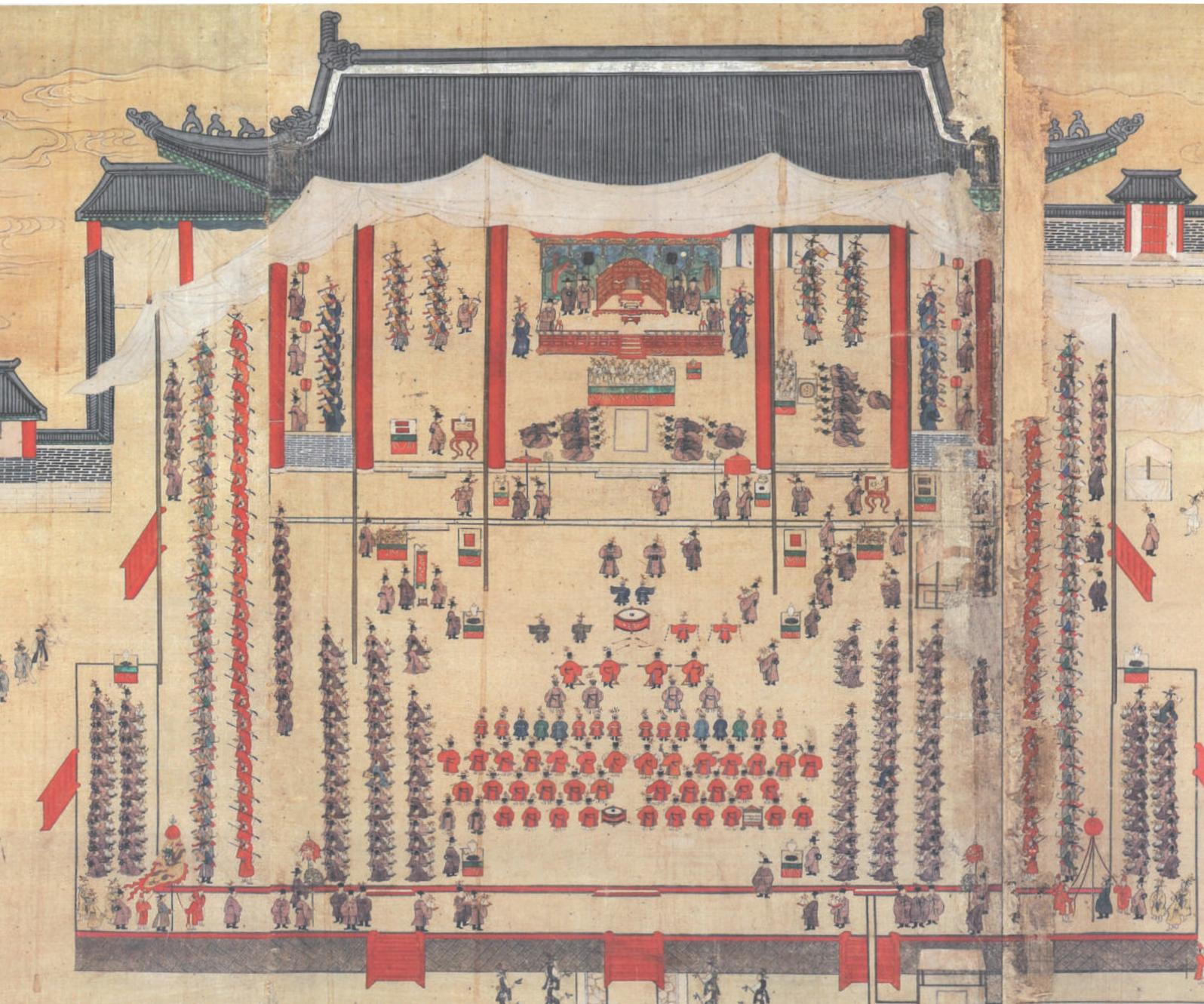


# 박물관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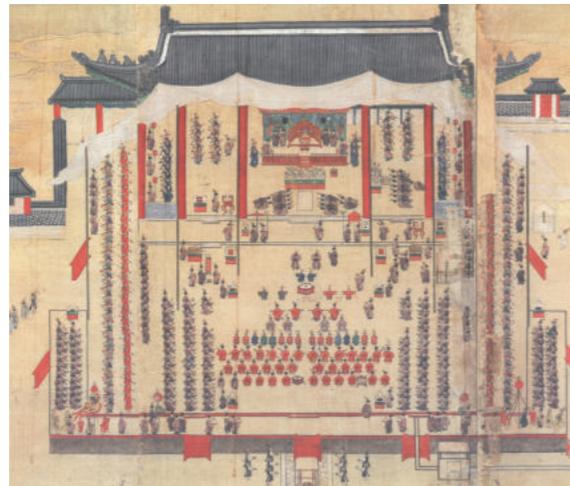
2017년 봄 · 57호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 박물관사람들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기축년의 궁중 잔치, 국립중앙박물관

## 2017년 봄 ■ 57호 Contents

|          |                     |    |
|----------|---------------------|----|
| 기획/기축진찬도 | 기축년의 궁중 잔치          | 4  |
|          | 길이길이 오늘과 같으소서       | 8  |
|          | 경사스런 오늘, 날이 좋았다     | 12 |
| 문화칼럼     | 영원한 연인이며 스승인 크리슈나   | 15 |
|          | 세 걸음의 신             | 19 |
| 전시실 산책   | 소원을 들어주는 부처         | 22 |
|          | 그때와 지금              | 24 |
| 회원마당     | 천마총 백화수피제 장년의 제작 기법 | 27 |
|          | 2017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계획   | 32 |
| 학술상      | 장수의 꿈               | 33 |
| 박물관회 소식  | 국립중앙박물관회는           | 34 |
| 숨은 전시    |                     |    |

발행일 2017년 3월 6일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회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전화 (02)2077-9790~3  
발행·기획 신병찬 편집위원 강현자·계운애·길문숙·문정원·서유미·정은정 진행 서승연 디자인 문화공간 (02)2266-1897  
전자우편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www.inmk.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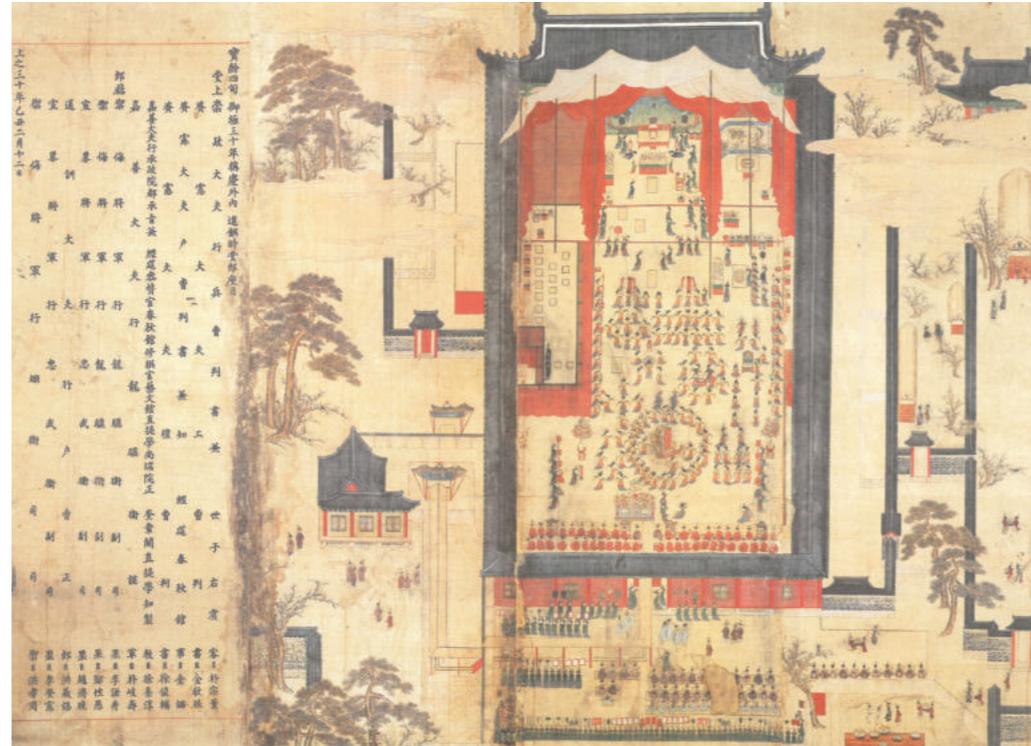
회지에 글을 쓰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축년의 궁중 잔치

1829년 기축년은 조선 23대 왕 순조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 중 가장 기쁜 해였다. 순조, 이공李琮은 1790년 6월 18일 아버지 정조와 어머니 수빈 박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문효 세자가 다섯 살 어린 나이에 홍역으로 죽은 지 4년 뒤였으니 당연히 왕실의 모든 이가 애타게 기다리던 축복 받은 탄생이었다.

11살이 되던 1800년 1월 왕세자 책봉을 받을 때까지는 많은 이들의 기대 속에서 순탄하게 성장했다. 아버지 정조는 세자 책봉이 끝나자마자 혼례를 서둘러 초간택, 재간택을 거쳐 김조순 金祖淳(1765~1832)의 딸을 세자빈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삼간택을 치르기 전인 그해 6월 28일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에 7월 4일 11살 어린 임금 순조가 즉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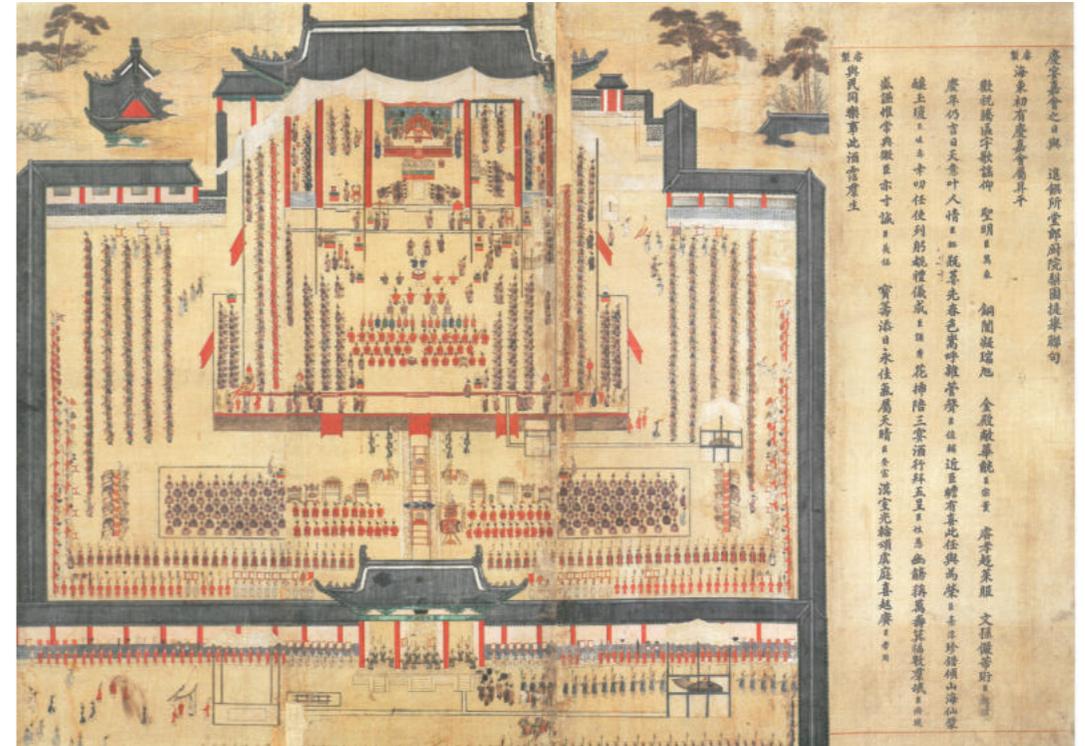
어린 왕이 즉위하자 영조의 비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며, 경주 김씨인 정순왕후를 중심으로 한 노론 벽파가 조정의 주도권을 잡는다. 이들은 정조의 군사적 기반이었던 장용영을 혁파하고, 남인을 제거할 목적으로 신유박해를 일으켜 천주교를 탄압한다. 1801년의 신유박해로 정약용의 3형제를 비롯한 수백 명이 목숨을 잃거나 귀양을 가며, 정치세력으로서의 남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몰락한다.



〈기축년의 궁중 잔치〉 내진찬, 국립중앙박물관

순조는 아버지의 3년상이 끝난 1802년 10월 13살에 김조순의 딸 순원왕후를 왕비로 맞이한다. 1803년 12월이 되자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거두고, 순조가 친정을 시작하지만 그의 나이 겨우 14살이었다. 결국 조정의 권력은 외척인 김조순이 이끄는 안동 김씨 집안으로 넘어갔다. 이조와 병조의 인사권까지 손에 넣은 이들에게는 거칠 것이 없었다. 이로부터 60여 년간 이어지는 세도정치의 시작이었다. 당파끼리 대립하는 ‘봉당정치’에서는 그래도 서로에 대한 견제 세력의 역할은 하는데, 세도정치는 그마저 사라져 버린 한 집안의 권력 독점이었다. 무소불위의 권력은 빠르게 부패하기 시작했고, 백성들의 삶은 나날이 어려워졌다.

결국 1811년 12월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 10여 일 만에 청천강 이북 지역을 장악하고, 이듬해인 1812년 1월에는 정주성이 함락된다. ‘홍경래의 난’은 정주성을 둘러싼 넉 달 넘는 공방전 끝에 진압되지만, 세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국왕 순조에게는 이런 현실을 바꿔 나갈 만한 힘이 없었다. 순조의 유일한 희망은 1809년 8월 9일 창덕궁 대조전에서 태어난 아들 이영李暹이었다. 태어난 그 날 원자元子로 삼았고, 4살이 되자 세자로 책봉했다. 할아버지 정조를 닮았다는 평을 듣는 영특한 아들이 하루하루 커 나가는 모습은 순조의 크나큰 기쁨이었으리라. 세자는 9살에 성균관 입학례를



〈기축년의 궁중 잔치〉 외진찬, 국립중앙박물관

치르고 11살에 풍양 조씨 조만영의 딸과 혼례를 치른다. 조만영은 대마도에서 구황작물인 고구마를 들여온 이조판서 조엄의 손자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인물이었다. 자신의 처가 집 안동 김씨와 외가집인 반남 박씨가 권력을 잡고 있던 당시 조정에서 순조는 세자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 만한 집안을 선택한 것이다.

순조는 1827년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당시 19살의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명령한다. 세자는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차근차근 개혁을 진행하는데, 처음 한 일은 인재 등용이었다. 국가재정을 담당하는 자리와 청요직이라 불리는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에 그동안 소외되어 있었던 젊은 관리들을 배치했다. 또한 과거제도의 부정과 비리를 없애고 3년 남짓 대리청정을 하는 동안 50여 차례나 과거를 실시했다.

두 번째로 한 일이 바로 궁중 ‘연향’의 부활이었다. 궁중 잔치인 연향은 왕과 왕비의 생일, 왕세자 책봉, 외국 사신 접대, 정초, 동짓날 등에 열리는 잔치로, <경국대전>에는 예조에서 주관하도록 정해져 있다. 세자는 ‘효심’이란 명분을 내세워 연향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유학의 최고 덕목인 ‘충효’에는 아무리 실권을 쥔 신하들이라도 탄소리를 할 수 없었다. 세자는 연향 때마다 직접 악장과 치사致詞, 전문箋文을 짓고, 궁중무용인 정재무才도 창작하며 모든 과정을 주관했다. 또한 신하들이 술잔을 올리는 것은 결국 국왕 순조에 대한 일종의 충성 서약이었으며, 국왕의 위엄과 권위를 높이는 일이었다.

세자는 모두 11차례의 크고 작은 연향을 주관했는데, 시작은 1827년의 ‘자경전 진작정례’였다. 훗날 현종이 되는 원손元孫의 탄생을 축하하는 잔치였고, 다음 해인 1828년에는 어머니 순원왕후의 40세 생일을 기념하는 ‘무자 진작’을 창덕궁 후원의 연경당延慶堂에서 열어 17종의 화려하고 웅장한 정재를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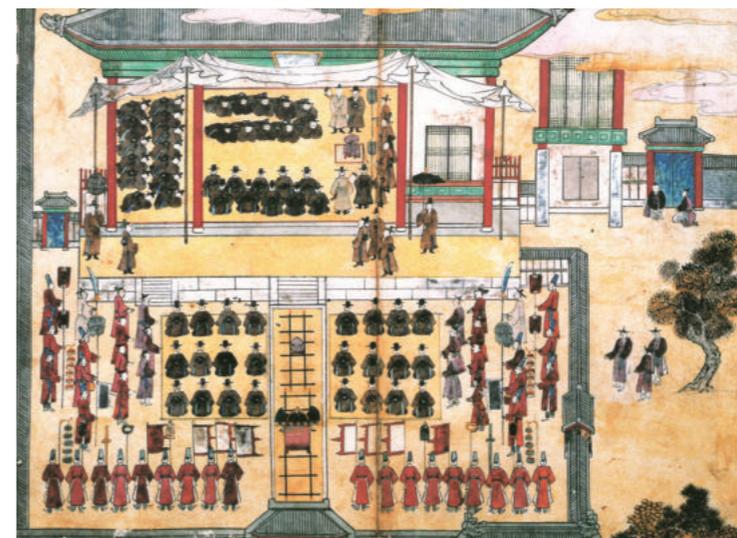
이런 준비 과정을 거쳐 드디어 순조 보령 40세, 재위 30년이 되는 1829년 기축년이 되었다. ‘순조 기축 진찬’이라 불리는 연향은 모두 여섯 번 열렸는데, 시작은 1829년 2월 9일 오시에 명정전에서 열린 ‘대전 외진찬’이었다. ‘외진찬’은 남성들의 잔치로 임금과 신하가 주축이 되며, 왕비나 대비는 참여하지 않는다. 2월 12일 자경전에서는 낮에 ‘대전 내진찬’이 열리고, 같은 날 밤에는 ‘대전 야진찬’이 열렸다. 내진찬은 왕실의 집안 행사로 왕과 왕비, 세자와 세자빈이 주인공이었다. 이밖에 내명부와 외명부, 왕족과 혼인한 의빈, 척신, 종친 그리고 진찬소의 당상이 참석한다. 그러나 내진찬은 여성들의 잔치이기 때문에 왕과 왕세자를 제외한 모든 남성의 자리는 문 밖에 배치했다. 여관, 여집사, 가의녀, 여령, 여기 등 잔치의 시중을 드는 사람도 모두 여성이었으며, 남성 악사가 참여할 경우 맹인 악사를 쓰거나 휘장을 설치해 그 안에서 연주

하게 했다. 이날의 잔치는 밤까지 이어져 ‘대전 야진찬’이 된다. 다음날인 12일에는 역시 자경전에서 ‘왕세자 회작’이 열렸다. 이 잔치는 왕세자가 주빈이 되어 잔치를 위해 애쓴 신하들에게 음식과 술을 대접하는 자리였다. 순조의 실제 생일이 있는 6월에는 자경전에서 대전 진찬과 야진찬을 조출하게 열었다.

이 해에 열린 잔치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단연 2월 12일의 ‘자경전 내진찬’이었다. 잔치가 시작되는 장면을 보자.

임금이 익선관과 곤룡포를 갖추어 입고 위치位次에 나오니, 풍운경희風雲慶會의 음악과 몽금척夢金尺의 춤을 추었다. 임금이 좌석에 올라 앉자 만수영무강인萬壽永無疆리를 연주하였다. 왕세자와 왕세자빈 및 좌우명부左右命婦·종친·의빈儀賓·척신戚臣들이 행례한 뒤에 태평년지곡太平年之曲·치화평지곡致和平之曲·경풍락지곡慶豐樂之曲을 연주하였다. 상식尙食이 어찬御饌을 받들어 올리자 서운요일지곡瑞雲曜日之曲을 연주하였다. 상식이 꽃을 올리자 경춘광지곡慶春光之曲과 영양춘지곡艷陽春之曲을 연주하였다. 꽃을 나누어 주는 예가 끝난 뒤에 사창司唱 2명이 악장樂章을 창하고 장생보연지악무長生寶宴之樂舞를 연주하였다. 왕세자가 수주정壽酒亭에 나아가 제1작第一爵을 상식尙食에게 주어 올리게 하고 여집사女執事가 치사致詞를 읽었다. 임기가 끝나자 수제천지곡壽齊天之曲을 연주하였다.

잔치가 끝난 뒤에는, 모든 과정을 기록한 <진찬의궤>를 만들었다. 6부를 만들어 규장각, 춘추관, 예조, 태백산 사고, 오대산 사고, 적상산 사고에 나누어 보관했다. 뿐만 아니라 잔치의 주요 장면을 그린 병풍을 만들었는데, 병풍 제작은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기축년이 처음이었다. 병풍은 100냥짜리부터 2냥짜리까지 여러 크기로 만들어 큰 것은 왕실에 보관하고 작은 것은 잔치에 참여한 관리들에게 상으로 주었다. 왕실용 병풍은 4개를 만들었는데,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2점, 호암미술관에 1점이 소장되어 있다.



왕세자입학도첩 수하도, 고려대학교 도서관

그러나 순조의 희망이자, ‘조선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세자 이영은 1830년 4월 22일 밤 잤은 기침 끝에 피를 토한다. 온갖 약재를 써도 소용이 없자, 순조는 귀양에서 돌아와 있던 정약용을 불러 도움을 청한다. 하지만 세자는 5월 6일 창덕궁 희정당에서 죽음을 맞는다. 그의 나이 스물두 살. 시호는 효성스럽고 영민하다는 뜻의 효명孝明이었다. ☹️

김문숙 회원

# 길이 길이 오늘과 같은 소서



〈기축년의 궁중 잔치〉 내진찬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때는 바야흐로 순조 29년 기축년 봄날.

오늘 창경궁 자경전에서 효명세자가 부왕의 사순四旬을 경축하기 위해 내진찬을 연다고 하니, 구경 한번 가보세. 내진찬에서는 궁중무용인 정재가 제일 볼 만하다고 하이. 오늘 정재는 여령女伶과 여기女妓들만의 춤이라 하니, 더욱 기대가 되는지고. 효명세자로 말할 거 같으면, 문학뿐만 아니라 예술에서도 뛰어나 궁중정재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 하이. 하여, 부왕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진연과 진찬 때마다 새로운 정재를 만들어 바친다고 하니, 정재에 대한 애정뿐 아니라 효성 또한 지극하이.

내진찬이 열리고 있는 자경전 연향장으로 가보세. 이미 진설이 끝나고, 왕세자빈과 왕세자, 이어서 왕이 진배를 마친 상태라고. 자, 의식이 시작되니. 왕이 출차를 하는구나. 군신

으로 서로 만나 공덕을 쌓음을 뜻하는 풍운경회지악風雲慶會之樂의 반주음이 아주 느낌조로 좌중을 보살펴 주누나. 드디어 첫 정재인 몽금척지무夢金尺之舞가 펼쳐지는구나. 이는 태조 이성계가 하늘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건국했다는 것을 무용화한 것이라 하이. 태조가 왕위에 오르기 전 태조의 꿈에 신선이 나타나 금으로 만든 자(尺)를 주었다는 내용의 춤이라네. 여령들은 머리에 해와 구름을 새기고 자 끝에 색실 매듭의 술을 늘어뜨려 화려하게 장식한 금척金尺을 뽐내며 춤을 추는구나.

악관들이 연주하는 만수영무강인의 반주음악이 흐르는 동안, 왕세자와 세자빈이 왕에게 사배를 올리는구나. 느리고 잔잔하게 흘러가는 당피리의 주선율이 세자 부부의 깊은 효심을 헤아려 주는 듯하이. 역시, 잔치에는 풍악이 일품이로고.

장생보연지악무長生寶宴之樂舞, 헌선도獻仙桃, 향발무響鉞舞, 아박무牙拍舞가 차례로 펼쳐지니, 참으로 진풍경이로고. 다양한 춤사위와 음악에 어깨춤이 절로 나니 또한 눈과 마음이 즐겁다마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버들가지처럼 나부끼는 자경전 마당. 잔치는 더욱 무르익어 가누나.

종친의 반수가 진작위에 나아가 제오작을 올리자, 악관들은 천년만세지곡을 연주하고, 무원들이 추는 포구락抛毬樂이 흥을 돋우네. 무대舞隊가 악관 및 여기를 이끌고 두 줄로 입장하는구나. 포구문을 가운데에 놓고 좌우편으로 편을 갈라 노래하고 춤추며 포구문 상부의 뚫린 구멍에 차례로 공을 던지는 놀이를 하네. 구멍에 공을 넣으면 봉화가 상으로 삼지화를 주고, 넣지 못하면 봉필이 별로 뺨에다 점목을 하는구나. 어쩔거나. 무원의 뽐안 얼굴에 검은 점목이 웬 말이고. 허나, 오늘은 경축일이요. 무원들이 놀이하듯이 춤을 추고 춤을 추며 놀이하니, 아니 재밌는가? ‘땡 텡 땡따 쿵따’ 반주 장단에 어깨춤이라도 추어 보세.

왕에게 ‘천천세’로 산호하고, 사배를 드린 후, 찬탁이 설치되자, 경태평지곡이 연주되고, 무고舞鼓가 등장하는구나. 큰북을 가운데 두고 무원들이 원형으로 둘러서서 북을 치기도 하고, 주변을 돌면서 춤을 추네. 청, 홍, 백, 흑의 4색으로 의상을 한 8인의 무원이 춤을 추는데, 네 사람은 양손에 북채를 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북을 에워싸며 북을 어르고 두드리네. 나머지 네 사람은 삼지화를 들고 북 주위를 돌거나 춤을 추는구나. ‘땡 기덕 쿵 더러러 덕’ 도드리 타령에 맞춰 느리게, 빠르게, 아주 빠르게로 춤이 나뉘어지다가, 잦아지는 북소리와 함께 춤이 다시 빠르게 고조되네. 화려하게 펼쳐지는 신비의 춤사위가 하도 아름답고 황홀하여, 절로 신명이 나는구나. 한 쌍의 나비



몽금척



무고



선유락

가 훨훨 날아 꽃을 홀리는 것인고, 꽃이 나비를 홀리는 것인고.

진작進爵의 절차에 따라 음악이 울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수연장지무壽延長之舞, 하황은荷皇恩, 연화대무蓮花臺舞, 검기무劍旗舞의 정재가 차례로 펼쳐졌다가 물러나는구나. 하, 이리도 많은 정재를 한자리에서 펼쳐 보이다니. 어찌 이리도 아름다운 춤을 보고 마음을 들기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 연향을 손수 관장하면서 상당수의 악장과 창사를 만든 효명세자의 마음이 들리는 듯하이.

술잔이 돌아가고, 악관들의 만방영지곡이 연주되니. 아름다운 그림과 조각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채선采船이 무대 중앙에 등장하는구나. 동기童妓 2인이 배에 올라 좌우로 등을 보이며 앉네. 안쪽의 무기舞妓 4인이 안에서 줄을 끌고, 바깥쪽의 무기 25인은 줄을 잡고 배를 끄니, 드디어 거대한 선유락船遊樂 정재가 펼쳐지누나.

“귀밑머리 하얀 늙은 어부 개펄 사이에 살면서 ‘물에서 사는 것이 산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고 스스로 말하네. 배 띄워라. 배 띄워라.”

어부사를 부르며 왼쪽으로 빙빙 돌면서 뱃놀이를 하네. 집사기執事妓 2인은 새 깃을 꽂은 주립을 쓰고, 무관 관복인 철릭을 입고, 검·활·화살을 차고, 배 앞에 양편으로 서서 호령집사의 역할을 하는구나. 궁중 큰 잔치가 있을 때마다 진행되는 가장 화려한 선유락이 군체軍禮의 형식으로 이어지누나. 정녕 거대한 규모의 군무여. 웅장하고도 화려하기 그지없네. 반주음악인 취타吹打가 군무의 웅장함에 힘을 실어주고, 악사인 내취수內吹手가 징·북·호적·자바라·나발의 악기로 아름다운 화음을 이끌어 내는구나. 정재는 절정에 다다라 대장관이 연출되네.

왕세자와 왕세자빈과 좌우 명부·종친·의빈·척신이 예를 마치는 사배를 올리자, 비룡인 연주와 함께 오늘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정재인 오양선五羊仙이 등장하네. 다섯 마리의 양을 타고 내려온 신선이 군왕을 송축하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구나. 왕모 1인, 협무 4인으로 구성된 5인의 무원들은 오색 양을 상징한다 하이. 악관이 중강령을 연주하면, 왕모 5인은 대열 안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네. 춤을 추다가 보허자령의 반주음악에 맞추어 벽연 룡효사를 창하니,



오양선 재연, 국립국악원 제공

“구중 높은 궁궐 바라보는 가운데 하늘 향해서 세 차례 축수하기를 만만 년 두고두고 남산 맞보고 솟아 있을지어다.”

마음을 녹일 듯이 깊고 고운 노랫소리는 한순간 좌중을 무릉도원으로 빠져들게 하는구나. 자경전을 휘돌아 울려 퍼지는 감미로운 노랫가락이 아주 매혹적이로고. 우아한 자태에서 나오는 곱디고운 소리가 봄바람처럼 가슴에 내려와 하늘거리는 듯하이.

자경전 마당을 화려하게 수놓는 정재들, 담담하고 유유한 장단과 우아한 춤가락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또 다른 멋을 엮어내니, 아름다운지고, 황홀한지고, 장중한 음악과 화려한 춤이 빚어낸 궁중예술의 격조와 감동이 느껴지오? 무릇 치사致詞에는, ‘상서로운 기운이 아침 햇살에 감돌고, 맛있는 술이 아름다운 술단지에 넘치는 가운데, 임금과 신하의 경사로운 모임에 북과 거문고 소리 울리며 만년 억년이 지나도록 해마다 이러한 연회를 베풀기를 비읍니다.’ 라고 하였거늘. 하여 오늘의 정재가 군왕의 공덕을 칭송하고, 장수를 기원하고 있는 이유로고.

저마다의 정재가 개성을 드러내면서도 전체의 조화를 깨뜨리지 않는 화합의 아름다움, 효명세자가 그리고자 하는 예술이고 충효일세. 그런 세상에서 춤추어 보세. 정재의 황금기를 연출한 효명세자여, 길이길이 오늘과 같으소서. ‘땡 기덕 따 땡 기덕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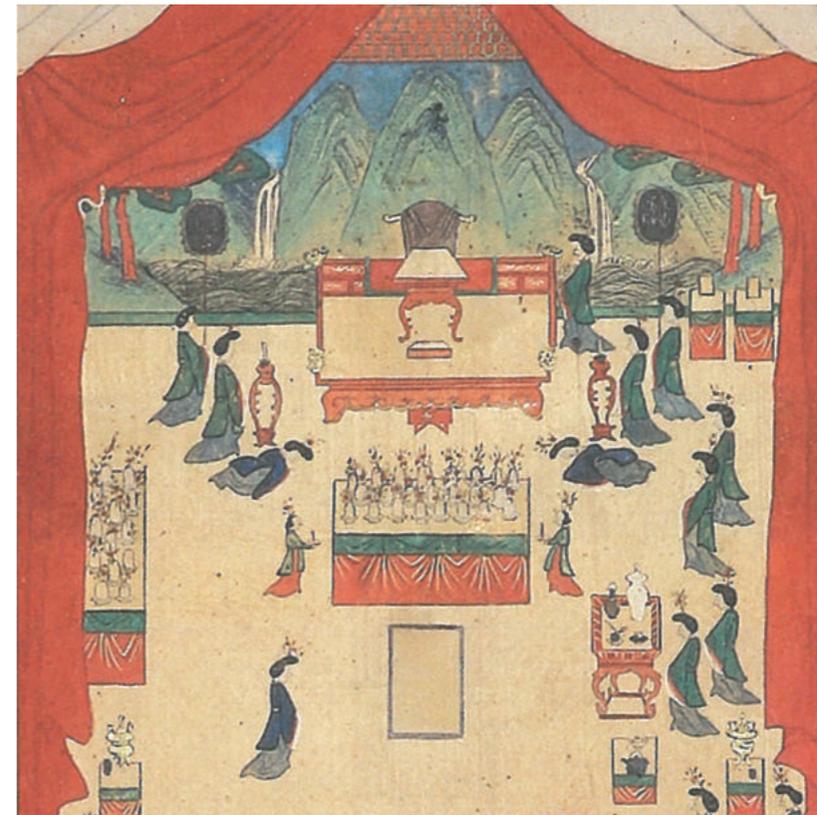
강현자 회원

# 경사스런 날이 오늘, 좋았다

무자년(1828) 11월 24일 효명세자는 두 차례의 상소 끝에 연향宴饗에 대한 전하의 전교를 받았다. 내년 기축년은 전하의 보령이 40세가 되고 재위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이 기쁜 해를 축하하는 잔치는 선왕이신 정조대왕이 어머님 혜경궁계 올린 회갑례에 근거하여 진찬례進饌禮로 정하였다. 큰 잔치가 열리기 전 제반 사항을 진행할 진찬도감을 설치하여 진찬 때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고, 의식 절차와 정재모才를 여러 번에 걸쳐 예행연습한다. 왕실 연회 음식을 준비하는 사용원은 연향 일자 별로 차리는 찬안饌案의 규모, 종류, 차리는 음식의 이름을 적은 찬품 단자를 만든다. 음식을 차리는 데 필요한 상, 그릇, 조리기구를 점검하여 부족한 것은 새로 마련하고, 식품 재료를 잔칫날에 맞춰 미리 준비하여 필요한 인원의 숙수를 동원한다.

사용원에 속한 숙수 백홍윤은 잔치 준비를 위해 들라는 소식을 받았다. 아버지를 따라 궁 출입을 하면서 왕실 음식을 전수받았고, 크고 작은 잔치를 준비해왔다. 더욱이 왕세자께서 대리청정을 시작한 이후 해마다 궁중 연향이 있어 그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런 날들이었다. 이번엔 전하를 위한 연향이니 더 크고 성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백홍윤을 비롯한 숙수들이 2월 12일에 있을 자경전 내진찬 준비를 위해 정월 15일에 궁에 들어왔다. 내진찬에 필요한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 처소로 쓰는 건례당 가까이에 내숙설소라는 임시 주방이 갖춰져 있다. 상을 차리는 데 쓰는 12칸 집, 탕과 찬을 만드는 데 10칸 집, 가마를 가설한 2칸 집, 잡물가설 집 7칸 등 55칸 규모가 놀랍다. 자색 무명으로 지은 두루마기에 자색 두건을 쓰고 일을 시작한다. 수하에는 구실아치들이 있어 각자 맡은 분야의 소임을 다한다. 종류는 많지만, 보관이 가능한 다식류와 약과·한과·유과·정과류 등 과정류菓飮類부터 먼저 만들기 시작한다. 잔치의 얼굴인 찬안에 올릴 음식을 만들기 위해 고기를 썰고, 긴 젓가락으로 전을 부치거나 무쇠솥으로 탕을 끓이고, 떡을 치고 음식을 찌내고 항아리에 음료를 만드는 손길들이 분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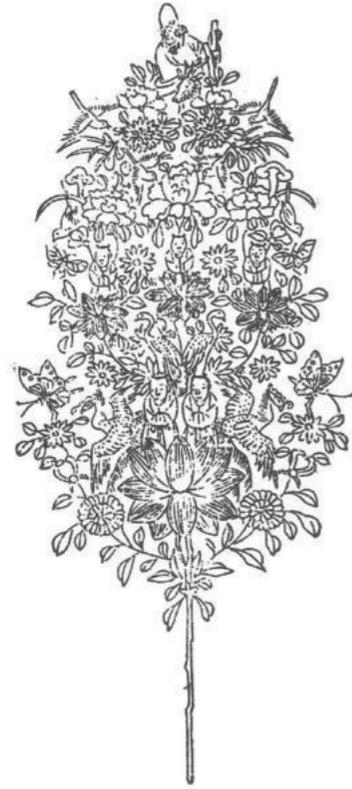
내진찬에 등장하는 특별한 음식으로 병시餅匙가 있다. 밀가루 반죽 피로 만들어 수저로 떠먹는 물만두 형태인데, 윗전 네 분의 찬안에만 오르는 귀한 음식이다. 이번 연회에 등장하는 13가지의 탕류 중 내진찬 찬안에 오르는 것은 칠계탕·금중탕·잡탕·추복탕이다. 금중탕錦中湯은 전하와 왕세자에게만 진상된 귀한 탕으로 무를 붓 두껍 만큼씩 모나게 썰고 박오가리를 다시마같이 썰어 묽은 닭과 해삼을 넣고 푹 곤 음식이다. 가장 자주 등장하는 잡탕은 소, 돼지, 닭, 해삼, 전복과 채소류 등 갖은 재료를 넣어 끓여낸 후 달걀을 곁들여 먹는다. 탕은 다양한 재료가 어우러져 맛과 영양을 함께 담아내는 진한 음식이기에 더욱 정성을 쏟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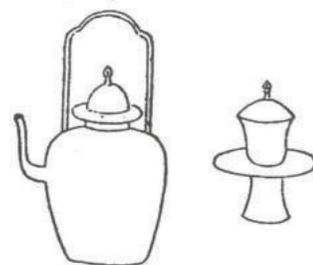
〈기축년의 궁중 잔치〉 내진찬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음식이 준비되면 푸른색 옷과 두건을 두른 군인들이 가자架子에 실어 나르고, 차비差備가 예법에 따라 음식을 차린다. 찬안의 차림 상은 장식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면·화채·찜·탕 등 물기 있는 음식을 제외한 떡류, 만두류, 과정류, 과일류, 전, 적, 포, 편육은 대전진어찬안大殿進御饌案中에서 공주 찬상에 이르기까지 모두 고이는 방식으로 올린다. 진어찬안은 1자 6치에서 2자 2치까지 높이 고여 화려한 모양새로 왕의 품격과 위엄을 보인다. 찬안은 왕실 지위에 따라 음식의 종류·찬품의 그릇 수·고임의 높이를 달리하고, 고임 음식 위에는 상화床花라는 화려한 꽃으로 장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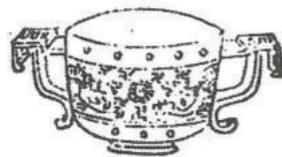
진찬례가 열리는 자경전으로 가보자. 주렴朱簾 위에 홍주겹휘장(紅紬甲帳)이 걸쳐 있고, 일월오봉병 앞에 전하의 용평상龍平床이 있어 그 위에 용교의龍交椅가 자리한다.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자경전 뜰에 넓은 덧마루를 임시로 설치하여 보계補階를 만들었다. 그 위에 붉은 칠을 한 수주정壽酒亭과 다정茶亭을 놓아, 주기酒器와 다기茶器를 올려놓았다. 주인공인 전하가 익선관에 곤룡포를 입고 어좌에 오르니 왕세자 이하가 사배四拜한다. 자경전 내진찬은 왕세자가 올리는 첫 번째 술잔인 진제1작進第1爵으로 시작한다.



순조기축전찬의례 기용도 삼층대수파련



순조기축전찬의례 기용도 은다관, 은다종



순조기축전찬의례 기용도 옥배

여집사女執事의 인도에 따라 왕세자가 수주정에 나아간다. 식찬의 총책임자인 상식尙食이 작爵에 술을 따라 왕세자 앞에 올리면 왕세자가 작을 받아 진작위進爵位로 나아간다. 전찬典贊이 “궐跪”라 칭하면 왕세자가 무릎을 꿇고 왕세자빈 이하도 무릎을 꿇는다. 왕세자가 작을 상식에게 주면, 상식이 작을 받아 어좌 앞의 안案에 술안주인 미수(연약과, 꽃감, 열구자탕, 족병, 전복볶음, 양만두, 붕어찜)와 함께 올린다. 전하가 작을 들고 전교를 전달하면 염수鹽水, 소선小膳, 탕, 대선大膳, 만두로 이어지는 음식상들이 순서에 따라 차례로 올려진다. 염수는 흰 소금이고, 소선과 대선은 소·양·돼지·닭고기의 숙편이다. 왕세자빈, 좌·우명부, 종친, 의빈, 척신 대표들이 2작에서 7작까지 잔을 올리면, 역시 미수마다 7가지 음식이 올라가는데 음식이 중복되지 않는다.

일곱 번에 걸쳐 잔을 모두 올리면, 전하가 왕세자와 왕세자빈에게 잔을 내린다. 이어 왕세자와 왕세자빈에게도 탕과 만두, 차를 올린다. 전하의 찬안 옆에 원형상을 붙여 별행과別行果를 올린다. 별행과는 과정류, 과일류, 탕, 포, 적, 면, 찜, 채, 음청류로 구성된다. 왕세자와 왕세자빈의 별행과는 찬안에 함께 올려진다. 공주와 옹주를 위한 찬상도 진상된다. 잔치에 참석한 좌·우명부, 종친, 의빈, 척신 등과 수고한 악공, 정재여령, 군인 등 참석자 전원에게 차등을 두어 다양한 음식을 대접한다.

진찬의 구체적인 전례를 보면, 신하들이 예를 다할 때와 음식을 받을 때와 물릴 때는 한결같이 음악도 춤도 모두 멈추고 경건한 상태가 된다. 효성스러운 왕세자는 흥년이 들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정책으로 안타까워하는 부왕의 걱정을 덜었다. 유교 국가 조선이 가장 중시했던 예禮와 백성의 안위安危를 뜻하는 식食은 같은 경건함으로 연향에 닿아 있다. 이에 백성들과 신하들은 왕의 경사스런 일을 같이 기뻐한다. 먹고 마실 것이 풍성하니 흥겨운 음악에 어깨춤이 절로 난다. 높고 낮은 신분이 함께 즐기며 어우러진다. 행사가 끝나면 참여한 인물에게 포상이 주어진다.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한 숙수 백홍윤도 품삯 외에 포상으로 무명 5필, 베 4필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다. 곧이어 있을 6월 진찬례도 기다려진다. 경사스런 오늘, 날이 참 좋았다. 🍀

정은정 회원



비슈누의 화신Avatara들

## 영원한 연인이며 스승인 크리슈나

종교, 의식주, 건축물, 예술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는 문화는 인간의 내면의식이 외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여행이 대중화된 요즘 우리도 낯선 문화를 만나면서 느끼는 문화적 충격은 당혹감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들의 의식과 나의 의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이 당혹감은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부감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낯섦’이라는 문화적 충격을 통해 타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한다.

인도를 접하면서 느끼는 문화적 충격은 다른 어떤 문화보다도 큰 편이고 그 이유 중에는 종교에서 비롯된 것이 상당하다. 실제로 인도의 지방을 다니다 보면 운전기사들이 운전 중에 차를 멈추고 길옆 사원에 들러 기도를 드리는

광경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버스나 자가용 심지어 자전거 앞에도 신상이나 신의 그림을 모셔놓고 아침저녁으로 향을 켜고 기도를 드리기도 한다.

인도의 고전에 의하면 신들의 수효는 모두 3억 3천이라고 한다. 여기서 3억 3천이라면 당시의 인도뿐 아니라 전 세계 인구보다도 많은데, 그토록 어마어마한 숫자를 거침없이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이유로 힌두교를 복잡한 형태의 다신교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 무수한 신들이 결국은 브라만으로 융합된다는 점에서 보면 그 같은 주장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신들은 이름붙일 수 없는 초월적인 일자로서의 절대자에게 이리저리한



라마와 하누만

이름을 붙이면서 각자의 필요에 의해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자인 신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개별적인 모습을 취한 채 지상에 현현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의미하는 산스크리트 용어가 아바타라Avatara로서 화신이라고 번역하며, 비슈누 신은 10개의 아바타라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힌두교의 특징에 대해 다신적 일신교라는 표현이 그나마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절대자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조건에 맞는 형태로 언제나 이 땅에 현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도인들에게 신들의 관념과 종교적 성향은 전혀 어색하지 않고 매우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인도에서 대중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인기 있는

신은 과연 누구일까? 인도의 2대 서사시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에 등장하는 크리슈나Krsna와 라마Rama를 들 수 있는데, 둘다 비슈누의 화신이다. 『라마야나』의 주인공인 라마는 라마나에게 납치당한 아내 시타를 구하기 위해 멀리 북인도 지역에서 남쪽의 스리랑카로 원정을 간다. 동생인 락쉬만과 함께 남인도로 향하던 도중에 만난 원숭이 하누만의 활약상은 후에 『서유기』에 등장하는 손오공의 모태로 간주된다.

크리슈나는 라마와 더불어 오늘날 인도에서 가장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비슈누의 화신이다. 그는 사랑과 즐거움의 화신이며 그 같은 긍정적인 면을 통해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파괴하고 인간들을 육체적 쾌락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는 언제나 손에 피리를 들고 아름다운 음악을 모든 존재에게 선사함으로써 그것을 듣는 이들에게 평화롭고 행복한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한 번 보기만 해도 모든 여인들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아무런 관련 없이 저절로 사랑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대단히 매력적인 존재이다. 실제 바가바타-푸라나라는 문헌에서는 크리슈나를 16,108명의 여인들의 남편으로 그리고 각각의 부인에게서 10명의 아들들과 한 명의 딸을 낳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크리슈나 신이 지닌 인간적인 사랑과 신적인 사랑이 보편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것을 상징하며, 이러한 신에 대한 사랑을 헌신이라는 의미의 박티bhakti라고 부르면서 높고 위대한 이상으로 삼는다.

크리슈나와 연인들이 추는 아름다운 사랑의 쾌활한 춤을 라사-릴라rasa-llila라고 부른다. 어느 날 밤 사랑의 열병을 앓는 여인들이 사랑하는 크리슈나와 만나기 위해 마을에 있는 집에서 몰래 도망쳐 나왔다. 크리슈나에 대한 열정적인 갈망을 불태우고 싶어 하는 여인들에게 그는 마술

피리 연주를 들려주었다. 지상의 것이 아닌 그 소리는 그녀들의 눈을 잃게 만들었다. 크리슈나와 여인들의 사랑이 정점에 이르자 그는 각 소녀에게 오직 그녀 자신만이 그와 춤을 추고 있다는 인상을 남기면서, 그녀들과 함께 마음껏 황홀경의 춤을 추었다. 그녀들은 다른 소녀들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그에 대한 열정을 모두 쏟아냈다. 이것은 신에 대한 헌신에 정신이 완전히 몰입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완벽한 비유이다.

완벽한 사랑의 이상적 연인의 모습 외에 크리슈나는 또한 『마하바라타』의 부분인 『바가바드기타』에서 아르주나의 마부로 등장하면서 전쟁을 망설이는 그를 지혜와 행위와 사랑이라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설득하여 승리를 이끌어내도록 돕는다. 여기서 크리슈나는 앞에서 언급했던 다정하고 매력적인 이상적 연인의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친구처럼 다정하게 아르주나의 용기를 북돋기도 하고 때로는 엄격한 스승처럼 그의 무지를 꾸짖는 참된 우주 진리의 전달자가 되기도 한다.

크리슈나는 이처럼 다정하고도 강인한 이중적 특성을 가진 인도의 여러 신들 가운데서도 아주 흥미로운 존재이다. 학자들에 따라서 크리슈나가 실제로는 고대의 전쟁 영웅이었으나 후에 신화적 요소가 첨가되면서 비슈누의 화신이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아마도 그의 다양한 특성들은 이처럼 실존적 영웅이 신격화되어 점차 신으로 간주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생겨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그의 탄생 설화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비슈누가 크리슈나로 태어나게 된 계기를 신화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비슈누의 화신인 라마가 숲속에서 적들의 공격을 받고 위협에 빠져 있는 성자들을 구해 준 적이 있었다. 성자들은 그의 강인한 용기와 수려한 외



목동 크리슈나와 라다

모에 흠뻑 매료되었다. 뿐만 아니라 숲속에 사는 온갖 짐승과 새들 심지어 곤충과 식물들까지도 그에게 반해 언제나 곁에 있고 싶어 했다. 모든 일이 자신 때문에 비롯된 것임을 알아차린 라마는 그들을 위하여 다음 생에 크리슈나라는 이름으로 태어날 것을 약속한다.

그의 예언이 있는 후 세월이 지나 칸샤Kansa라는 강력한 힘을 가진 악마가 왕족으로 태어나 온갖 악행을 일삼자, 비슈누가 칸샤의 누이동생 데바키에게서 7번째 아들 크리슈나로 태어난다. 이 신화적 내용은 그리스의 타이탄족에서 제우스가 태어나는 과정과 매우 흡사하다. 칸샤는 그의 탄생을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심지어 태어난 갓난 아이를 죽이기 위해 가슴에서 선의 상징인 모유가 아니라



크리슈나가 어린 시절을 보낸 브린다반

독이 나오는 여 악마 푸타나까지 동원하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만다. 그 가운데 크리슈나가 칸샤의 핍박을 피해 브린다반에서 목동으로 생활하면서 보여준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는 오늘날에도 인도인들이 가슴에 깊게 새겨져 영화나 문학작품의 주요한 소재가 된다.

온갖 고난을 무사히 극복한 크리슈나는 드디어 칸샤를 물리치고 나서 동족인 야다바족을 이끌고 구자라트에 있는 드와르카로 가서 왕국을 세우고 백성들을 다스린다. 그 과정에서 앞서도 언급했듯이 인도의 패권을 다투는 마하바라타의 전쟁이 시작되고 친구인 아르주나가 도움을 요청하자, 더 이상 전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심한 그는 아르주나의 마부가 되어 승리를 이끄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마하바라타의 전쟁이 끝난 뒤 다시 자신의 왕국으로 되돌아 온 크리슈나는 왕국 내부의 다툼이 벌어져 형과

아들이 죽자 실망하여 숲속에서 깊은 슬픔에 잠겨 있다가 그를 사슴으로 착각한 사냥꾼에 의해 목숨을 잃고 만다.

크리슈나의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는 전 과정은 매우 드라마틱한 요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한 요소들은 한편으로는 인도에서 신에 대한 사랑으로서의 박티 신앙으로 발전하고, 다른 한편 그의 목동으로서의 삶 등은 목자신앙과 연결되면서 서구 종교의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되기도 한다. 크리슈나에 대한 신앙은 바가바타 종파를 형성하여 오늘날 인도뿐만 아니라 서구세계에서도 가끔 접할 수 있는 종교형태가 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어찌 되었든 인도인들의 크리슈나에 대한 사랑은 앞으로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여인들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상적인 연인으로, 남성들에게는 참과 믿음으로 자신을 이끌어 주는 친구이자 스승으로. 🐾

김형준 원광대학교



## 세 걸음의 신

우주의 두 번째 시기인 트레타 유가에는 아수라의 왕 발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바마나라는 난쟁이가 발리의 궁전을 찾아와 자신이 세 걸음에 밟을 수 있는 만큼의 땅을 달라고 청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 발리는 이를 승낙했다. 그러자 바마나는 거인으로 변하여 첫 걸음에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두 번째 걸음에 지상계에서 지하세계로 넘어갔다. 약속을 지켜야 했던 발리는 머리를 조아려 세 번째 걸음을 디디는 곳에 갔다 대었다. 이로써 삼계三界의 새 주인이 된 바마나는 발리를 지하세계로 보내 그곳을 다스리게 하였다.

세 걸음의 신, 트리비크라마trivikrama, 우주를 유지시키는 신인 비슈누의 수많은 호칭 중 하나인 이것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다. 난쟁이 바마나는 실은 비슈누의 화신이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인도-동남아 실에는 이러한 비슈누를 새긴 석상이 있다. 2006년에 국립중앙박물관회에서 구입하여 기증한 것이다.

트리비크라마를 묘사한 많은 도상들에서 비슈누는 한쪽 발을 번쩍 올리고 있지만, 이 석상처럼 거인의 모습으로만 표현하기도 한다. 정면을 향하여 연꽃 위에서 서 있는 비슈누는 전통적인 왕의 옷을 입고 네 손으로 그를 상징하는 네 가지 물건을 들고 있다. 왼쪽 어깨부터 오른쪽 허리까지 늘어진 끈이 유독 눈에 띈다. 그것은 약노파비타라는 성스러운 끈으로, 상층계급의 학생들이 성전聖典을 공부하기 위한 입문식을 할 때 착용하는 것인데, 이 입문식은 다시 태어남의 상징이라고 한다. 또한, 무릎 바로 밑까지 늘어진 것은 비슈누를 묘사할 때 그가 늘 걸고 있는 숲의 화환이다.



석조 비슈누 부조, 국립중앙박물관

비슈누의 오른쪽엔 총채를 든 락슈미, 왼쪽엔 비파와 비슷한 악기인 비나를 든 사라스바티 여신이 서 있는데, 그의 배우자들이다. 락슈미가 거기 있는 것은 당연한데 일반적으로 브라흐마의 배우자로 알려진 사라스바티가 비슈누의 배우자라는 사실이 좀 의아했다. 구전되어 내려온 인도신화의 특성인지 여기에도 여러 이야기와 교리적, 역사적인 것들이 얽혀 있었다. 또 하나, 상단 꼭대기에 자리한 괴수의 정체가 흥미로웠는데, 그것은 영광의 얼굴이라는 뜻의 키르티무카이다. 사실 시바신과 관련된 신화를 지닌 괴물이지만 그와 상관없이 벽사의 용도로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한다. 웬지 유래는 확실치 않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의 건축 여기저기에 나타나는 귀면과 통하는 듯하다.

이 석상을 처음 본 것은 사진을 통해서였다. 그런데 바로 눈에 들어온 것은 위에 언급한 특징들이 아니라 겨드랑이 아랫부분의 배경이 파여 있어서 뒷벽이 유독 잘 보였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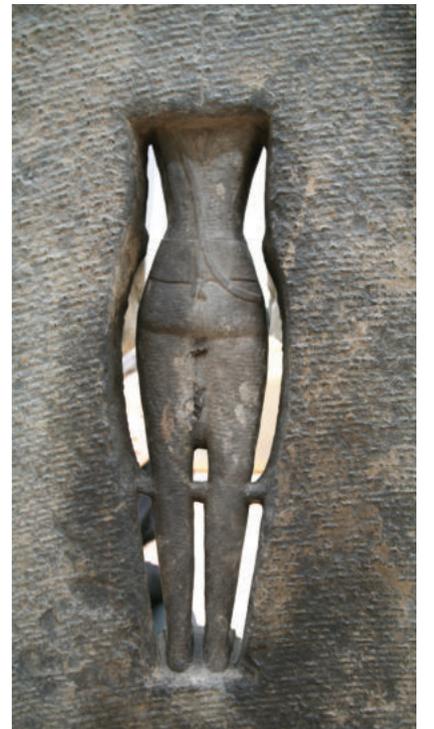
왜 그렇게 했을까? 뒷면은 어떻게 생겼을까? 신도들이 예배할 때 불상처럼 한 바퀴 돌게 되나? 도대체 이걸 어디에 설치했던 것인가? 단순히 기능적인 이유인가? 우습지만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이 궁금증을 해소하려고 여기저기 파헤치다가 알게 된 것들이다. 그러다가 운 좋게 뒷면 사진을 볼 기회가 생겼다. 아, 뒷부분이 통째로 파여있다는 생각을 미처 못했다. 신의 뒷모습 치고는 좀 민망하다. 신도들에게 보여줄 것은 아니었나 보다. 결국 이유는 알아내지 못했다.

이 신상이 만들어진 시기는 인도의 팔라 왕조 중흥기인 11~12세기경으로 추정된다. 유럽에서 로마제국이 멸망한 후 중소국가들로 나뉜 시기를 중세라고 하듯 인도의 중세는 굽타 왕조가 무너진 후 여러 나라로 분열된 6세기 무

렵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팔라 왕조는 이들 중 하나였고 8세기부터 12세기까지 비하르와 벵골 등 북동부지역을 안정적으로 지배했다. 전대인 굽타 왕조 때 힌두교가 체계화되면서 널리 퍼져 인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불교가 쇠퇴해가는 중이었지만 아무래도 불교 성지를 보유하고 있어서인지 팔라 왕조는 여전히 불교를 적극 장려하고 사원과 대학을 세웠다. 팔라 왕조보다 앞선 시기에는 당나라 현장이 이곳의 날란다 사원에서 대승불교를 공부했고, 8세기에 신라의 혜초가 다녀갔던 다섯 개의 천축국 중 한 나라가 바로 팔라 왕국이었다.

그런데 불교를 장려했다면 힌두 신앙이라니? 더구나 이러한 형식의 석상은 이 시기의 대표적인 석상으로서 이렇게 정형화된 석상들이 현재까지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그것은 당대에 비슈누 신앙이 널리 퍼져 있었다는 증거 아닐까? 알고 보니 팔라 왕조는 불교를 장려하면서도 힌두교 또한 허용하고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쇠퇴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을 터인데 나라에서 권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닌가 보다. 혜초 또한 불교가 쇠퇴한 모습을 몇 세기 전에 이미 기록으로 남겼다. 확실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불교에서 떠나고 있었다는 것이다.

힌두교에 잠식당하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 중 하나였는지 아니면 그 반대였는지 인도의 불교는 신격, 주술, 의례 등 힌두교적인 요소를 도입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탄트라, 즉 밀교이다. 동아시아로 전파된 밀교는 신라와 고려 불교에 많은 흔적을 남기고 지금까지 존재하며, 특히 현재 일본 불교에는 밀교의 바탕이 짙게 깔려 있다고 한다. 티베트 등지로 전파된 밀교가 가장 흥하였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인도의 불교는 팔라 왕조와 함께 그 발상지였던 인도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져버렸다. 인도-동남아시아의 비슈누상은 팔라 시대의 다른 조각들과 함께 전시되어 있는데 대부분 불상들이다. 이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생각해 본다. 그것은 역사의 필연이었을까 역설이었을까? 한 가지 더, 보잘것없는 난쟁이가 단지 세 걸음만으로 삼계의 주인이 되는 이야기는 필연에 대한 이야기인가, 역설에 대한 이야기인가?



석조 비슈누 부조 뒷면, 국립중앙박물관

# 소원을 들어주는 부처



북장사 영산회괘불도, 상주 북장사

박물관 복도에서 한 장의 포스터가 얼른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 장의 다양한 포스터들 속에서 유난히 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짧지만 달콤한 세 단어가 저를 잡아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부처, ‘소원’이란 두 글자에 눈길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이 세상에 소원 하나 품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소원’이란 단어가 시선으로 들어온 순간, 수많은 소원들이 떠올랐습니다. 엄청난 자극이 밀려온 것입니다. 망설이지 않고 한걸음에 소원을 들어준다는 부처를 보러 달려갔습니다. 마음 깊이 담아 두었을 뿐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소원을 읊조리며 북장사 괘불을 찾아갔습니다. 소원을 누군가와 의 대화를 통해 쏟아 내는 경우는 간혹 있었지만 혼자 읊조려 본 적은 드물었습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부처를 만나러 가는 길이기에 혼자만의 읊조림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를 만나면 으레 합장을 하고 소원을 읊조리게 되니까요.

북장사 영산회괘불탱을 마주한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념무상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소원을 빌겠다는 일념 하나로 달려간 간절한 마음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영험한 기운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머릿속이 아무 생각 없이 비워지자 순수하고 해맑았던 한때로 돌아가 마치 어린아이의 마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북장사 영산회괘불탱을 보며 우선 그 크기에 놀라고 선명한 붉은색과 녹색의 화려함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더 머물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입가를 맴돌던 소원은 끝내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강의 시간 내내 괘불의 잔상이 사라지지 않아 강의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처음 본 괘불의 기운에 압도된 것입니다. 수업을 듣는 동안 마는 동안 쉬는 시간만을 기다려 또 다시 괘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괘불을 감상할 수 있는 긴 의자에 앉아 한없이 위로 쳐다봤습니다. 강의 시간 전에 첫 대면한 이후로 읊조렸던 소원은 더 이상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잠시 누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듯 괘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득해졌습니다. 안달하던 소원도, 자극이 필요했던 열정도 잠시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침잠하고 난 뒤에 채워지는 맑고 깊은 기운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북장사 영산회괘불에 관한 설화는 마주한 괘불에 신령스런 힘을 보태었습니다.

“신라 때 당나라 스님이 여기서 그림을 그렸다. 사흘 동안 문을 닫은 채 먹지도 않고 사람들이 왕래하는 것도 금하였다. 그런데 다른 스님이 몰래 문틈으로 엿보니 그림 그리는 스님은 보이지 않고 새 한 마리가 화면 앞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만 보일 뿐이었다. 스님이 엿보자 갑자기 새는

날아가버렸다. 방에 들어가 그림을 보니 한쪽 귀퉁이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가뭇이 심한 어느 해 이 그림을 읊으로 가져와 기우제를 지내니 곧바로 응험이 있었다.”

북장사는 신라 흥덕왕 8년 진감국사 혜소가 창건한 장백사를 전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17세기 후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소실된 전각과 불상을 조성하며 높이 20자 폭 30자의 괘불도를 조성했다고 합니다. 일주문 밖까지 그 위용을 드러낼 만큼 엄청난 크기입니다.

보통의 괘불도와 달리 북장사의 괘불도는 서 있는 모습으로 조성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사찰에서는 전란으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천도하기 위한 의식이 법당 밖 마당에서 열렸습니다. 이 의식에서 불상 대신 대형 불화인 괘불을 걸었습니다. 괘불은 법회에 참석한 사람들 중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잘 볼 수 있도록 세로로 긴 형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부처의 이미지에 변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앉아서 설법하는 석가모니는 서 있는 모습으로 그 도상을 바꾸어 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북장사 영산회괘불도에서 시작되어 조선 후기 경상북도 괘불의 특징으로 전승되었습니다.

소원이 무엇일까요?

간절히 바라는 것 자체가 삶이 아니던가요?

비우고 다시 채우기를 반복하는 것이 인생 아닌가요?

소원을 들어준다는 부처를 바라보며 던진 물음은 저에게로 되돌아왔습니다.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달려갔던 나 자신이 소원을 이루게 만드는 주체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부처’는 각자의 주변에 있음을 새삼 되새깁니다. 🍀

강수정 회원

## 그때와 지금

오래전 일이다. 한창 손오공에 빠져 있던 동생이 언제부터인가 금색 천을 펼쳐 들기 시작했다. 한동안 황금박쥐의 요술망토라며 애지중지하던 천이 광배의 대용품이 되었다. 손오공을 쥐락펴락하는 부처님의 신묘한 능력을 탐내더니 힘의 요체는 불상의 광배光背라고 나름 짐작했던 모양이다. 당시 동생이 곡식을 까부는 키 형태의 광배를 알았다면 어땠을까. 오줌싸개라고 놀리며 굶은 소금을 건네는 이웃에게 키를 돌려 쓴 장난꾸러기는 신나게 장풍을 날렸으리라.

부처는 32상相 80종호種好를 지닌다. 머리와 몸 주위의 광배를 비롯하여 머리 위로 불쑥 솟은 육계, 미간의 백호 등이다. 인간의 모습을 바탕으로 표현된 신성하고 초월적인 형상은 어린아이 눈에도 범상치 않아서, 불상 앞에서는 말을 삼가며 자세를 살필 줄 알았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을 맞추며 말을 건네고파 가까이 다가서곤 했다. 부처의 잔잔한 미소와 손갓춤(手印) 때문이었지 싶다.

여래상의 보일 듯 말 듯 한 미소는 엄부자모嚴父慈母란 옛말과 이어져 인상에 남아 있다. 이리 보면 잘못을 꾸짖는 것 같고, 저리 보면 달래 주는 듯 느껴진다. 미소에 이어 시선을 잡아끄는 곳이 부처의 두 손이다. 정적인 분위기의 불상에서 동세가 느껴지는 유일한 부분으로 소리 없이 부처의 말씀을 전해준다.

설화에 의하면 석가는 탄생하자마자 북쪽으로 일곱 발짝을 댄 후 한 손을 들어 하늘을, 다른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면서 '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 했다. 이를 구현한 탄생불誕生佛은 몸에 비해 두 팔이 긴 모습으로 상체는 벗은 채 짧은 하의만을 걸친 입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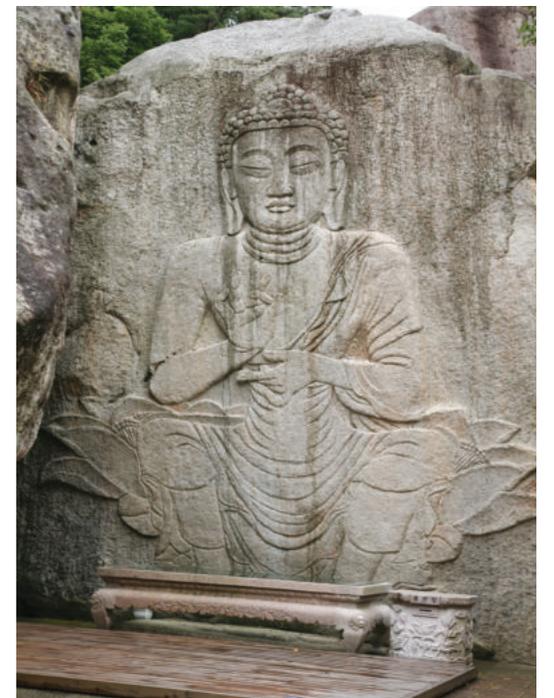
꼬맹이 시절에는 후덕한 중년 남성과 부처를 동일시한 상태라서 처음 탄생불을 보았을 때 불상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자그마한 데다 어려 보이는 모습이니 동자승 같은 어린이를 위한 인형인가 했다. 다른 오해도 있었다. 한자를 하나둘 배워가던 무렵 탄생 사자후를 글자 그대로 풀이한 후 태자 시절의 석가는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겼다고 생각했다. 언제였던가, '유아독존'에서 '나(我)'는 석가 개인만이 아닌 모든 존재를 가리키고 탄생불의 수인, 천지인天地印은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안함과 안도감이 교차했던 기억이 새롭다.

우리나라 불상에서 가장 많은 수인은 석가모니불이 취한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이다. 잡념을 버리고 마음을 모을 때 취하는 선정인禪定印에서 오른손만을 풀어 무릎 아래쪽을 가리킨다. 권속을 이끌고 온 마왕의 방해에도 석가모니가 득도하였음을 지신地神이 증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려 철불처럼 결가부좌한 부처의 당당한 체격에는 어울리지 않게 여리고 고운 손이라 여겼는데 항마촉지인의 의미를 되새기면 이전과는 사뭇 다르게 보인다. 폭풍우를 잠재운 고요의 표상이라 할까, 유혹을 이겨내고 고난을 견뎌낸 강한 힘이 느껴진다.

부처나 보살의 수인은 각각 바람을 이루고자 하는 다짐(本誓), 스스로 깨닫는 일(內證), 중생을 구하고자 기원하는 일(誓願), 공로와 덕행(功德) 등을 상징한다. 교리적으로 중요하여 함부로 변형하거나, 특정 수인을 다른 불·보살에 표현하는 것을 금한다. 그런데 경전의 내용과 다르게 표현된 경우도 있어서 수인만으로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비로자나불 등을 구별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불보살상과 수인의 불일치는 어떠한 연유였을까. 텍스트를 이미지로 '번역'하다 생겨난 오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염원이 낳은 조형언어는 아니었나 싶다. 예측 가능한 경우보다 예외적인 상황에 주목하는 것이 인지상정. 부처의 가르침이 영속되기를 바랐던



철조석가불좌상, 국립중앙박물관



법주사 마애여래상



금동탄생불, 국립중앙박물관



서산 마애삼존불상 중 본존상

옛사람들은 시대가 변하면 부처의 말씀을 새로운 맥락으로 해석하라고 슬쩍슬쩍 수인의 '파격'을 시도했는지 모른다.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경우라 하는 설법인說法印 또한 역사적 의미가 크다. 열반의 경지를 스스로 얻은 부처가 최초로 행한 설법인 초전법륜初轉法輪(진리의 수레바퀴를 처음으로 돌렸다는 의미) 때의 수인이다.

설법인과 가장 유사하다는 범주사 마애여래상의 수인은 꽃과 노니는 나비의 선묘 같다. 다채로운 손동작이 인상적인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전통 춤사위, 마술사의 현란한 손놀림도 겹쳐진다. '손'이 가면 '눈'이 따르고 '정신'이 머무른다. 석가모니가 설한 고타 · 집集 · 멸滅 · 도道의 사제四諦 법문이 수행하던 비구들의 마음자락에 고운 자수되어 새겨졌을 것이다.

손 모양이 위아래 대칭을 이루는 수인도 있다. 삼국시대 불상이 두 수인을 동시에 취한 경우가 많아서 함께 묶어 통인通印이라 부르는 여원인與願印과 시무외인施無畏印이다. 각각 중생이 원하는 바를 달성케 하는 대자大慈의 덕과 중생을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비慈悲의 덕을 나타낸다.

서산 마애삼존불상의 본존불은 통인을 취하고 있다. 푸근한 '백제의 미소'에서 시선을 내리면 여원인의 왼손에서 접혀진 약지와 소지가 눈에 띈다. 부처의 어린아이처럼 천진스런 눈웃음 때문일까, 구부린 손가락 사이에 무엇인가 숨겨져 있을 듯싶다.

부처상은 약 오백 년에 이르는 무불상시대 이후 출현한다. 열반에 든 석가모니를 지상 세계에 재현해 놓은 것은 가시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진리를 찾아가는 '이성의 눈'이 아니다. 당대 신앙심과 미감이 투영된 '감성의 눈'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른 형상으로 불상을 빚어내고 조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가는 실제 2600여 년 전 이 땅에 태어난 선각자임은 틀림없기에 부처의 일대기나 불상에는 신화 속 인물과는 다른 실체감이 깃든다. 여러 수인을 되짚어 가다 보면 부처 삶의 궤적이 손에 잡힐 듯 그려진다.

마음 한편, 금색 천의 이미지가 다시 생생해진다. 지금껏 어릴 적 마음 그대로 였더라면 우아한 수인에 감화되어 위대한 종교 세계에 눈을 떴을 터인데. 어쩌면 이젠 중년을 훌쩍 넘긴 꼬마가 꿈꿨던 찬란한 광배를 목도할지도 모르는데. 가만히 두 손을 모아본다, 그리워 아련한 마음이 접어지려나. ☺

문정원 회원

## 천마총 백화수피제 장니의 제작 기법

### I. 서론

1973년 천마총에서는 자작나무 수피로 만든 장니 1쌍(2점)이 출토되었다. 지금까지 이 장니들에 대한 연구는 도상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체로 장니가 자작나무 수피를 이용해 만들어졌고, 그림이 그려졌다는 사실 이외에는 알려진 정보가 적었던 게 사실이다. 장니가 1500여 년 가까이 땅속에 묻혀 있다가 출토되다보니 그 재질이 연약하고 그림의 변색이 우려되어 공개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천마문 장니는 장니(하)로 위에 있던 장니(상)의 아래쪽에서 출토되어 좀 더 잘 보존되었다. 이번 천마총 특별전과 연구집 발간으로 보존 수복되지 않았던 장니(상)을 처리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장니(상)과 장니(하)의 제작기법을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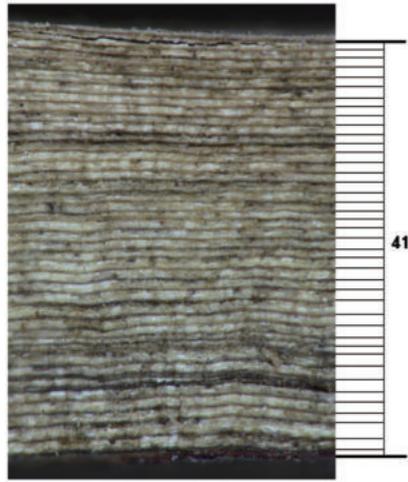
본고에서는 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장니가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알기 위해 그것에 사용된 목의 종류를 비롯해 자작나무의 특징과 분포를 검토하고자 한다. 장니판이 자작나무인지 거제수나무인지에 대한 여러 논란도 있어 수종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하다. 특히 장니판의 제작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수피의 채취와 그 채취를 알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피채취가 어느 때나 가능하다고 막연히 생각해왔으나 현지조사 등을 통해 수피채취의 과정과 방법을 알아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작나무숲으로 유명한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숲을 방문해 시료를 협조를 받아 여러 가지 실험을 직접 실시하였다. 그리고 장니의 제



천마총 백화수피제 장니(상)



천마총 백화수피제 장니(하)



천마총 백화수피제 장니(하) 단면

작기법에는 장니판의 다듬기와 표면정리, 결합방식, 채색 등 장니에 사용된 여러 가지 기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II. 자작나무과(Betulaceae)와 장니판

장니에 사용된 수피는 자작나무의 것으로 천마총 발굴보고서(문화재관리국 1974)는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자작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자작나무는 없었으며, 현재 우리가 보는 것들은 모두 최근에 옮겨 심은 것들이다. 원대리 자작나무숲이 20년 이상 조림된 것임에도 실제 씨앗이 퍼져나가 자생된 자작나무는 거의 없다고 한다. 흰색의 수피가 발달해 있어 지금까지 이 나무를 이용해 천마총 장니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신라시대에는 자작나무 수피를 수입하지 않는 한 이용할 수 없었다.

천마도 장니의 장니판에 사용된 나무의 수피는 바로 외수피이다. 자작나무에서 수피를 떼어내는 시점은 나무가 물이 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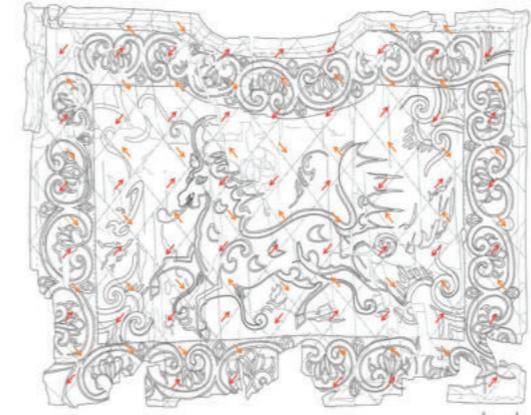
라왔을 때, 즉 수액을 채취할 수 있는 시점이 적기이다. 물이 오른 시점이 아닌 때 나무에서 수피를 떼어내면 외수피 안쪽으로 내수피가 함께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와 수피의 상태가 좋지 않게 된다.

장니판의 수피는 껍질눈과 옹이가 작고 드물며, 나뭇가지가 없는 곳을 선정하는 것이 수피 결정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을 것이다. 장니판에는 여러 개의 옹이가 남아있다. 이러한 옹이는 장니판의 원료인 자작나무 수피를 구하기가 결코 쉽지 않음을 말해주는 흔적이기도 하다. 장니(상)보다 장니(하)가 옹이의 크기가 더 크고 더 많다. 장니판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껍질눈은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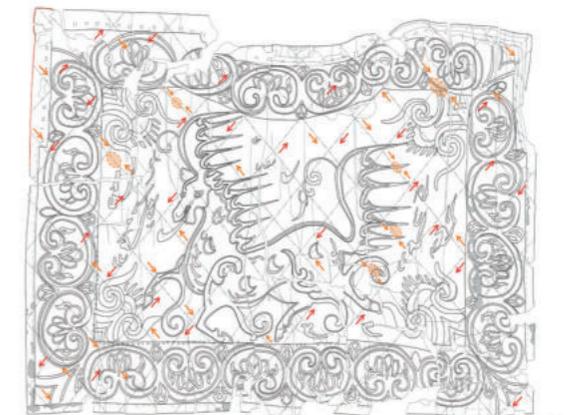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달리 장니의 그림이 그려진 면은 바로 외수피의 안쪽면이라는 점을 옹이로서 알 수 있다. 장니(상)과 장니(하), 2점의 장니 모두가 안쪽면에 그림이 그려졌다. 또한 장니판의 옹이는 그대로 남겨두지 않고 장니판을 만들면서 외수피 바깥쪽면의 옹이를 칼과 같은 도구를 깎아서 편평하게 만들었다.

천마문 장니의 장니판은 하나의 장니에 세 장씩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장니에 사용된 자작나무 수피는 외수피와 내수피가 있다. 나무에서 나이트가 생기는 것은 목질부이며, 성장 정도를 나이테로 알 수 있다. 자작나무의 외수피는 성장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대략 1년에 한 매씩 생성되는 것으로 추정한다면 외수피 층으로 최소한의 나무 수령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1997년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보존과학 ’97” 특별전에서도 언급되었다.

먼저, 장니에 사용된 자작나무의 수피층을 헤아리기 위해 현미경으로 수피 단면을 촬영하였다. 수피의 숫자는 측정부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장니(상)은 앞판이 뒤판보다 훨씬 얇다. 앞판은 수피 단면이 34~36층으로 최소 36년 이상된 자작나무에서 수피를 채취한 것이다. 뒤판은 수피 단면



장니(상)의 누비 바느질 방향



장니(하)의 누비 바느질 방향

이 48~50층으로 동일한 나무에서 채취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확실치는 않다. 다만, 수령이 최소 50년 이상된 자작나무에서 수피를 채취했다.

장니(하)도 장니(상)과 마찬가지로 앞판이 얇고 뒤판이 두껍다. 앞판에 사용된 자작나무의 수령은 수피 단면의 껍질 숫자가 41층으로 최소 41년은 넘는 자작나무에서 수피를 채취했다. 뒤판은 앞판보다 더 두꺼운데, 수피 단면이 52층으로 52년 이상된 것에서 수피를 채취했다. 우리는 장니 제작자가 앞판보다는 뒤판이 더 단단하도록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 III. 장니판의 소재

장니판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장니(상) 앞판은 잔존치수가 73.4×54.7cm이다. 뒤판은 잔존치수가 72.6×52.6cm이다. 뒤판 중 좌측의 잔존치수는 44×52cm이고, 우측은 54.5×38.4cm이다. 장니(상)의 앞판과 뒤판을 합친 두께는 4~8mm정도로 부위별로 차이가 있다.

이것의 제작 당시 크기는 잔존크기보다 조금 더 큰 75.0×

56.8×0.73cm로 추정된다. 앞판과 뒤판을 합쳤을 때의 두께는 4.5mm 정도이다. 하지만 두께가 뒤판이 겹쳐져 있는 부위는 장니판이 세 겹으로 합쳐져서 7~8mm로 장니에서 가장 두껍다. 장니의 가장 두꺼운 부위는 장니의 중앙 부분에 장니판 세 겹이 합쳐지는 세로지점이다.

장니(상)은 그림을 그리는 앞판은 하나의 나무에서 떼어낸 것이다. 뒤판에 사용된 것은 앞판의 절반정도보다 조금 더 큰 크기의 2개의 판을 사용하였다.

장니(하)의 앞판은 잔존치수가 73.2×55.2cm이다. 뒤판(좌)은 잔존치수가 39.1×52.4cm이고 우측은 39.5×52.6cm이다. 장니(하)의 앞판과 뒤판을 합친 두께는 4~8mm정도로 장니(상)과 마찬가지로 측정위치에 따라 다르다. 제작 당시 크기는 잔존크기보다 조금 더 큰 74.2×56.0×0.298cm로 추정된다.

장니(하)의 앞판은 나무의 성장 방향과 동일하게 껍질눈이 직교한다. 이는 장니 2장을 합쳤을 때 변형을 방지하고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장니 2점은 채색면이 되는 수피의 안쪽면을 보면, 물이 올

랐을 때 수피를 채취한 후 바로 안쪽껍질을 벗겨낸 것임을 알 수 있다. 장니를 만들 때 뒤판을 왜 2장으로 했는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만, 앞판처럼 큰 판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가능성과 한 판보다는 두 판으로 제작하는 게 장니가 보다 견고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장니를 만든 사람들은 옷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누비기술을 앞판(한 장)과 뒤판(두 장)을 한 판으로 만드는데 적용시켰다. 누비는 바늘땀을 위아래로 띄엄띄엄 성기게 꿰매는 바느질 방법인 흠질을 주로 사용했다. 이러한 응용능력은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창의력이 필요하다. 그것도 천이 아니라 나무껍질을 1,500여 년 전에 누볐다는 사실은 아주 놀라운 일이다.

#### IV. 안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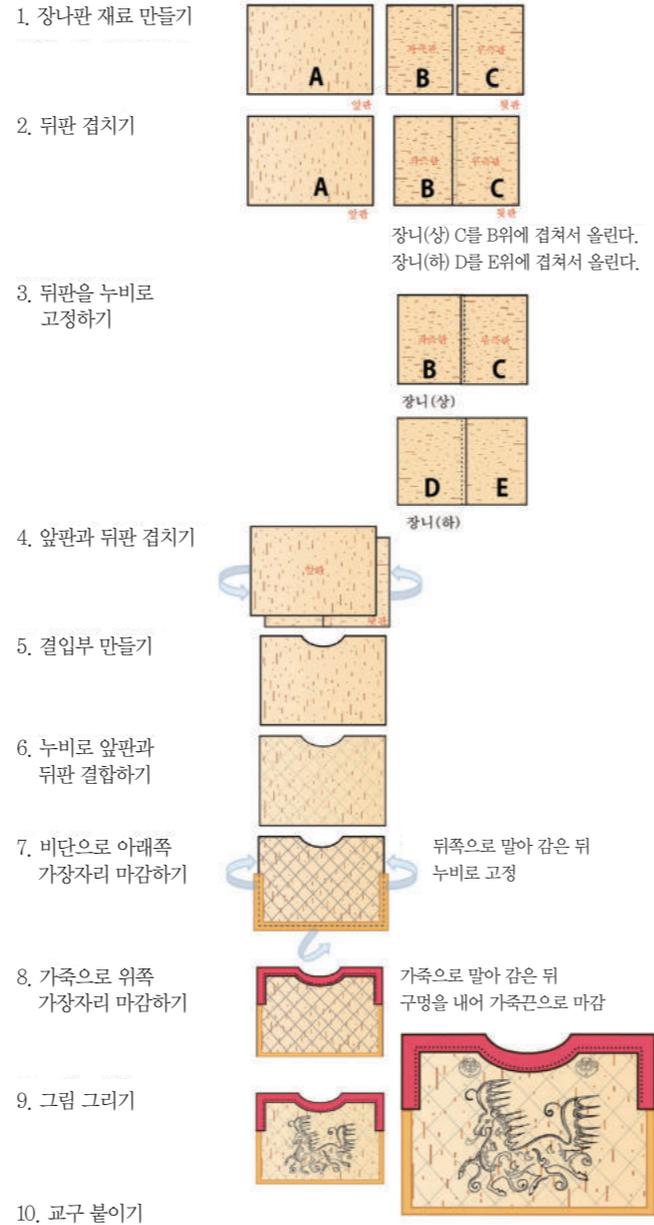
안료는 무기안료와 유기안료로 나눌 수 있다. 색은 그 물질이 안료로서 사용가능한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물리적 요소이다. 안료는 빛의 스펙트럼을 흡수하고 반사되면서 색을 띠게 된다. 색의 밝기, 순도 등은 안료 입자의 크기와 형태, 색 흡수률에 따라 달라진다.

유혜선·신용비(2014)가 분석한 장니의 안료분석 결과를 참조하면 백색, 적색, 흑색, 흰색이 사용되었다.

장니(상)에는 채색부위에 웅이가 있는 쪽을 가급적 피하였다. 장니(상)은 기본적으로 웅이가 장니(하)에 비해 작거나 덜 두드러진다. 반면, 장니(하)의 앞판 표면에는 큰 웅이가 하나 있다. 그것도 천마의 엉덩이가 있는 부위이다. 사실 장니 제작용 수피가 채취되는 과정에서 웅이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좋은 나무를 아주 신중하게 골랐으며, 중요한 물건을 제작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외수

피의 안쪽면은 바깥쪽의 웅이보다 요철이 약하고 매끄러운 면을 지니고 있다. 그림이 그려진 외수피 안쪽면에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안 보일 수 있으나, 껍질눈이 확인된다.

#### V. 제작순서



#### VI. 결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장니의 제작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반도 고대 사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장니에 대한 여러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니에는 거제수나무가 아닌 자작나무 수피가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장니는 수피의 바깥면이 아닌 외수피의 내수피(안쪽면)에 그림을 그렸다.

셋째, 바탕색은 칠하지 않았고, 외수피 안쪽면의 원래 색상을 바탕색으로 활용하였음을 처음으로 밝힐 수 있었다. 백색은 연백, 적색은 진사, 흑색은 먹, 녹색은 석록의 4가지 안료가 이용되었다.

넷째, 장니 2점은 하나의 그림을 동일하게 베낀 것이 아니라 구도만 유사할 뿐 세부적으로 도상에 차이가 있었다. 장니 2점은 같은 제작자가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가능성보다는 복잡한 세부공정을 감안하면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분업방식으로 제작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 같다. 다섯째, 장니에는 고대 사회의 다양한 기술들의 집약체이며, 다양하게 기술들이 장니제작에 응용되었다. 장니의 제작과정은 장니판의 재료 가공부터 교구 붙이는 과정까지 모두 10단계의 공정을 거쳤다. 이러한 공정은 세부적으로는 좀 더 많은 단계를 거쳤을 것이다. 장니 2점을 만들기 위해 앞판 2장, 뒤판 4장의 장니판이 필요하였다.

장용준, 김중우 국립경주박물관

#### 심사평\_김수기(용인대학교 교수)

백화수피로 제작된 유물을 다양한 실험과 분석 및 과학적 관찰을 통하여 제작 방법과 과정을 파악한 것은 독창적이며 참신한 연구라고 사료된다. 백화수피의 흰색인 외면에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고 황색의 내면에 그림을 그린 것을 밝혀낸 것은 일반적인 생각을 뒤엎는 매우 의미 있고 귀중한 연구 결과로 보여진다. 그림 그릴 때 바탕색을 안 칠했다거나 제작에 있어 여러 장인들이 분업하여 제작했을 가능성을 제시한 것도 매우 학술적 성과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 심사평\_김규호(공주대학교 교수)

이 논문은 천마총 출토 백화수피제 장니의 제작과 특징에 대하여 정리한 논문으로 학술적 가치와 문화재적 학술 가치가 높다고 생각된다. 특히, 장니판의 재료와 특징을 고찰하고 이를 기초로 복원 제작을 한 점에서 다른 논문과 차별성이 있는 논문이다. 다만, 논문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학문적, 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존과학 분야로 한정하여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이와 같은 융합적인 성격의 논문은 별도 학술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심사에서는 보존과학적 측면만을 고려하면 일부 미비한 점들이 확인되지만 학문간 융합연구로 그 학술적 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 2017년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계획

| 기간                        | 구분  | 명칭                                       |
|---------------------------|-----|--|
| 16. 12. 20. ~ 17. 04. 09. | 기획전 | 브루클린박물관 소장 이집트 보물전<br>-이집트 미라 한국에 오다     |
| 04. 25. ~ 10. 22.         | 테마전 | 고성 옥천사 괘불                                |
| 05. 09. ~ 08. 27.         | 기획전 | 아라비아의 길<br>-사우디아라비아의 역사 문화               |
| 05. 13. ~ 07. 09.         | 특별전 | 선인들의 마음, 보물이 되다<br>-신국보보물전-              |
| 05. 30. ~ 08. 15.         | 특별전 | 프랑스 근현대 복식, 단추로 풀다                       |
| 09. 19. ~ 11. 12.         | 특별전 | 왕이 사랑한 보물<br>-독일 드레스덴박물관 연합 명품전          |
| 09. 26. ~ 11. 26.         | 기획전 | 쇠, 鐵, 鋼<br>-철의 문화사-                      |
| 17. 12. 19. ~ 18. 04. 15. | 기획전 | 프랑스 미술의 거장들, 후생에서 마티스까지<br>-에르미타시박물관 명품전 |



호랑이 모양 띠고리, 삼한실

## 장수의 꿈

꿈과 거북이 형태의 단추를 단  
가죽 갑옷,  
옷깃을 여미고,  
그 위로 호랑이 모양 허리띠 고리를  
꽉 조여 땀다.  
적진을 바람처럼 누비면서  
승전보를 전하는  
진한의 장수를 그려본다.

# 국립중앙박물관회는

##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鐘仁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 李大源, 金相万, 金聖鎭, 鄭鎭肅, 金榮秀, 俞相玉, 柳昌宗 회장을 거쳐 2011년 11월 金正泰 회장이 취임했다.

會 長 | 金正泰  
 副 會 長 | 申聖秀 洪錫肇  
 理 事 | 金信韓 金英那 南秀淨 朴殷寬 禹燦奎  
           尹碩敏 尹在倫 李健茂 李圭植 鄭溶鎭  
           許榕秀 洪政旭 李榮勳  
 監 事 | 金教台 李教祥  
 事 務 局 長 | 辛炳讚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특별회원과 기부회원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은 백두 백억 원, 청룡 오십억 원, 백호 삼십억 원, 주작 십억 원, 현무 오억 원, 천마 일억 원, 금관 오천만 원, 은관 삼천만 원, 청자 일천만 원, 백자 오백만 원, 수정 이백만 원 이상으로 한다.

|   |  |  |   |
|---|--|--|---|
| <b>주작회원</b><br>尹光子  | 회원   | 金承謙<br>金信韓<br>南秀淨<br>都炯泰<br>朴炳燁<br>朴容允<br>俞相玉<br>尹在倫<br>李圭植<br>李明姬<br>李垞炘<br>鄭明勳<br>鄭在鳳<br>趙顯相<br>許允秀<br>洪政旭 | 서릉지주(주) 대표이사 의장<br>대성 사장<br>(주)썬앳푸드 사장<br>갤러리현대 대표이사<br>팬택&큐리텔<br>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br>코리아나화장품 회장<br>성보문화재단 이사장<br>경신금속(주) 대표<br>일우재단 이사장<br>MashupAngels 대표<br>전 서울시향 예술감독<br>(주)한섬<br>효성 산업자재 PG장&전략본부 부사장<br>(주)ALTO·(주)ALTEK 부사장<br>(주)헤럴드 회장 |
| <b>현무회원</b><br>金正泰  | 하나금융그룹   |  |   |
| <b>천마회원</b><br>朴殷寬<br>孫昌根<br>申聖秀<br>申憲澈<br>尹碩敏<br>尹章燮<br>鄭溶鎭<br>千信一<br>許榕秀<br>洪錫肇 | (주)시몬느 회장<br>소장가<br>고려산업(주) 회장<br>SK에너지<br>SBS미디어홀딩스 부회장<br>전 성보문화재단 이사장<br>신세계그룹 부회장<br>세종문화재단 이사장<br>GS EPS 대표이사<br>(주)BGF리테일 회장 | <b>은관회원</b><br>姜院基<br>金教台<br>金南延<br>金錫洙<br>金寧明   | 오리온 대표<br>삼정회계법인 대표<br>(주)동훈 대표이사<br>동서식품(주) 회장<br>(주)예을 이사장  |
| <b>금관회원</b><br>姜德壽<br>庚 園<br>權俊一, 具在善<br>曉 憬                                      | (주)STX<br>광제사 주지<br>Actium Group 부회장<br>회원   |  |   |

|   |  |
|---|--|
| 金英姬<br>金鍾漢<br>金芝延<br>柳芳熙<br>朴英柱<br>朴知原<br>朴 龍原<br>裴東眩<br>徐載亮<br>成來恩<br>成弼鎬<br>宋 哲<br>梁洪碩<br>禹燦奎<br>柳昌宗<br>李教祥<br>全裁範<br>崔杜準<br>崔正勳<br>최철원<br>韓惠舟<br>許允烘 | 회원<br>(주)종합전기 대표<br>(주)건설 대표<br>(주)풍산주택 회장<br>(주)다이소아성산업 부사장<br>두산중공업(주) 대표이사 부회장<br>두산(주) 사장<br>창성그룹 대표이사 사장<br>전 국립중앙박물관회 부회장<br>(주)영원무역홀딩스 대표이사 사장<br>광성기업(주) 대표<br>성문출판사 대표<br>대신증권(주) 사장<br>학교재 대표<br>전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br>서울가든호텔 부사장<br>금강공업(주) 사장<br>(주)동남유화 부회장<br>대보건설(주) 부사장<br>M&M(주) 사장<br>하피스트<br>GS건설 전무 |
|---|--|

### 청자회원

|  |   |
|--|---|
| 姜承模<br>高基瑛<br>具東輝<br>具本權<br>具本商<br>具本赫<br>金建昊<br>金京姬<br>金寧慈<br>金大煥<br>金東官<br>金東準<br>金斗植<br>金性南<br>金性完<br>金世淵<br>金永珉<br>金榮秀<br>金英惠<br>金裕錫<br>金侖壽<br>金恩惠<br>金益煥<br>金仁順<br>金載烈<br>金載勳<br>金正宙<br>金宗學<br>金兌炫<br>金澤辰<br>金賢銓<br>南兌勳<br>柳重熙<br>柳智勳<br>朴環鎭<br>朴仙卿<br>朴善正<br>朴宣注<br>朴世昌<br>朴載相<br>朴載蓮<br>朴廷彬<br>朴正遠<br>朴俊泳<br>朴海春        | KP그룹 부회장<br>(주)금비 부회장<br>(주)LS 이사<br>LS-Nikko동제련(주) 부장<br>LIG넥스원(주) 부회장<br>LS-Nikko동제련(주) 전무<br>삼양사 팀장<br>(주)피어나조경 대표이사<br>(주)예을 명예이사장<br>(주)슈페리아·슈페리어홀딩스(주) 사장<br>한화 큐셀 전무<br>다우데이터 이사<br>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br>한영회계법인 부대표<br>스무디킹 Global CEO<br>동일고무벨트(주) 부회장<br>김&장 법률사무소<br>2014아시아게임 조직위원장<br>제일화재 이사장<br>(주)해남 대표이사<br>지리산 문학관 관장<br>서울도시가스 이사<br>한세실업(주) 이사<br>한국고미술자기 연구소<br>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br>영풍제약 부사장<br>(주)NXC 대표이사<br>서양화가<br>성신양회(주) 사장<br>(주)엔씨소프트 대표<br>히든베이호텔 사장<br>국제약품 대표이사 사장<br>(주)퓨처플레이 대표이사<br>(주)한답 사장<br>진주햄 대표이사 부사장<br>웅인대학교 부총장<br>대선제분(주) 전무<br>영은미술관 관장<br>금호아시아나그룹 사장 |
| 方正梧<br>裴允植<br>徐東姪<br>薛允碩<br>孫元洛<br>宋秉峻<br>辛炳讚<br>申硯均<br>辛永茂<br>愼昌宰<br>沈宗玄<br>楊仁集<br>梁汰會<br>吳勝敏<br>吳治勳<br>柳東鉉<br>俞承熹<br>柳英芝<br>尹 寬<br>尹普鉉<br>尹勝鉉<br>尹賢慶<br>李甲宰<br>李圭鎬<br>李起雄<br>李萬圭<br>李美淑<br>李常宰<br>李善眞<br>李承勇<br>李英純<br>李鈴子<br>李玉卿<br>李容濬<br>李宇成<br>李宇鉉<br>李雲卿<br>李胤基<br>李仁洙<br>李宰旭<br>李廷龍<br>李周成<br>李柱翰<br>李濬宇<br>李芝衡<br>李哲雨 | 성공미술관 이사<br>(주)신원 부회장<br>재미교포<br>본음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

|  |   |
|--|---|
| 方正梧<br>裴允植<br>徐東姪<br>薛允碩<br>孫元洛<br>宋秉峻<br>辛炳讚<br>申硯均<br>辛永茂<br>愼昌宰<br>沈宗玄<br>楊仁集<br>梁汰會<br>吳勝敏<br>吳治勳<br>柳東鉉<br>俞承熹<br>柳英芝<br>尹 寬<br>尹普鉉<br>尹勝鉉<br>尹賢慶<br>李甲宰<br>李圭鎬<br>李起雄<br>李萬圭<br>李美淑<br>李常宰<br>李善眞<br>李承勇<br>李英純<br>李鈴子<br>李玉卿<br>李容濬<br>李宇成<br>李宇鉉<br>李雲卿<br>李胤基<br>李仁洙<br>李宰旭<br>李廷龍<br>李周成<br>李柱翰<br>李濬宇<br>李芝衡<br>李哲雨 | TV조선 상무<br>(주)한국제인모터 대표이사<br>회원<br>대한광통신 사장<br>(주)경동홀딩스 상무<br>(주)게임빌·(주)컴투스 대표이사<br>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br>아름지기 이사장<br>법무법인 세종 대표<br>대산문화재단 이사장<br>한국기구박물관 부관장<br>(주)진로 대표이사 사장<br>(주)비상교육 대표이사<br>동일산업(주) 대표이사 사장<br>대한제강(주) 대표이사 사장<br>인성산업(주) 전무<br>코리아나 화장박물관 관장<br>유금와당박물관 기획실장<br>BlueRun Ventures 대표<br>호림박물관 이사<br>(주)뉴라이트전자 대표이사<br>동화약품 상무<br>삼일회계법인 전무<br>코오롱 인더스트리 상무<br>열화당 대표<br>에머슨퍼시픽 대표이사<br>삼표산업<br>(주)삼화택시 대표이사<br>목금토갤러리 관장<br>(주)에이티파트너스 대표이사<br>한국미술협회 회원 |
| 서울옥션 대표<br>(주)경농 부사장<br>(주)이테크건설 부사장<br>OCI 사장<br>남양유업 전문위원<br>그랜드힐튼호텔 사장<br>수원대학교 이사장<br>전남일보 사장/발행인<br>가나아트갤러리 대표<br>세아제강 전무이사<br>(주)삼익유니버스 이사<br>흥아해운 전무<br>창원지방법원전주지원 판사<br>롯데쇼핑 총괄사장  |   |

|  |   |
|--|---|
| 李學俊<br>李海珍<br>林鍾勳<br>張善霞<br>張升準<br>張仁宇<br>洋賢財團<br>田永采<br>田潤洙<br>丁恩美<br>鄭義宣<br>鄭在昊<br>鄭志伊<br>趙炳舜<br>曹榮美<br>曹榮峻<br>曹在顯<br>趙希卿<br>陣在旭<br>千碩圭<br>崔世勳<br>崔雄善<br>崔仁善<br>崔再源<br>崔惠玉<br>한국도로공사<br>韓榮宰<br>咸泳俊<br>許正錫<br>許辰秀<br>玄明官<br>玄智皓<br>胡鍾一<br>胡昌成<br>洪範碩<br>洪碩杓<br>洪誠杓<br>洪元福, 金根鎬<br>洪正國<br>洪正道<br>洪進基<br>洪振碩<br>黃仁奎<br>Joseph Bae<br>Mark Tetto | 서울옥션 고문<br>NAVER 이사회 의장<br>한미IT(주) 대표이사<br>(주)교원 부문장/부장<br>매일경제 사장<br>선인자동차·고진모터스 대표이사<br><br>(주)한길봉사회 이사장<br>중국미술연구소 대표<br>블룸앤코 대표<br>현대자동차 부회장<br>대호물산(주) 대표이사<br>현대유엔아이 전무<br>성암고서박물관장<br>경동소제 대표이사<br>우양산업개발(주) 대표이사<br><br>(주)가온소사이어터 대표<br>하나유비에스 대표<br>천일식품(주) 대표<br>(주)카카오 CFO<br>(주)인팩 대표이사<br>회원<br>SK(주) 부회장<br>회원·자원봉사<br><br>노루홀딩스 회장<br>(주)오투기 회장<br>일진홀딩스(주) 대표이사<br>SPC(주) 부사장<br><br>(주)화승R&A 부회장<br>호성홍업 회장<br>(주)더벤처스 대표이사<br>남양유업(주) 부장<br>고려제강 상무<br>고려상사(주) 부회장<br>회원<br>(주)BGF리테일 전무<br>중앙미디어네트워크 대표이사 사장<br>마리오아울렛 이사<br>남양유업(주) 상무<br>충남도시가스 대표이사<br>KKR Asia Limited 대표<br>TCK Investments 상무 |
|--|---|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